

仁祖 전반기의 舊闕(昌慶宮)의 중건과 궁궐 경영*

- 『承政院日記』 인조 임어 기사의 분석 -

윤 정**

1. 머리말
2. '舊闕'의 소실과 '新闕' 임어
 - 1) '舊闕'의 소실과 慶運宮 훼손
 - 2) 慶德宮 臨御와 仁慶宮 활용
3. '舊闕' 移御와 重修
 - 1) '舊闕' 移御의 배경
 - 2) 昌德宮 수리와 昌慶宮 重修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초기에 세워진 궁궐인 景福宮과 昌德宮, 昌慶宮 등은 임진왜란으로 일본군이 도성에 진주하면서 모두 소실되었다. 선조-광해군대에 都城을 복구하면서 파괴된 궁궐들의 중건도 모색되었다.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았으나 선조 말부터 창덕궁과 창경궁 등 '舊闕'이 중건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궁궐들이 영건되면서 조선전기와는 다른 궁궐 운영체계가 수립되었다.

선조는 도성으로 환어한 후 貞洞에 行宮을 마련하여 머물렀는데, 이 행궁은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시설을 갖추면서 離宮으로 전환되었다. 광해군은 이러한 위상 변화에 맞추어 궁호를 慶運宮으로 정하였다.¹⁾ 이어 광해군은 도성의 서북쪽에 새로이 仁慶宮과 慶德宮 등 '新闕'을 영건하였다.²⁾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 - 2009 - 353 - A00092).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경운궁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윤정, 2011a 「宣祖 후반~光海君 초반 궁궐 경영과 '慶運宮'의 수립」 『서울학연구』42 참조.

그런데 광해군 후반 경운궁에 仁穆王后를 유폐하고 大妃의 위호를 박탈하는 한편, 경운궁의 分司를 철거하여 격을 낮추었다. 그 결과 인조반정 당시 도성에는 중건된 창덕궁·창경궁 등 ‘舊闕’과 인경궁경덕궁 등 새로 영건된 ‘新闕’이 도성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광해군의 궁궐 운영 체계는 인조대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반정 과정에서 화재로 창덕궁이 소실되었고, 경운궁은 철거되어 本主에게 환원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곧이어 발생한 李适의 난으로 창경궁마저 소실되었다. 明清의 교체라는 국제정세 변동과 전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궁궐 영건에 나설 수 없었던 인조는 부득이 광해군이 영건한 경덕궁에 머물러야 했다.

결과적으로 반정으로 성립한 인조 정권은 궁궐 영건을 위시한 광해군의 정치를 弊政으로 규정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영건한 궁궐에서 지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조대 궁궐 경영은 광해군의 신궐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구궐의 중건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조대의 궁궐 경영은 丙子胡亂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인조 전반기는 신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구궐의 소실과 함께 경덕궁이 時御所로 사용되었고, 한편에서 인경궁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후 인조 10년부터 경덕궁을 떠나 창경궁으로 이어하고 이에 수반하여 창경궁이 부분적으로 중수되지만, 광해군의 궁궐 경영의 기반 아래 서있던 기초를 유지하였다.

인조 후반기에는 창덕궁이 중건되어 이를 중심으로 궁궐 운영체계가 수립되는 반면, 신궐은 궁궐 경영에서 배제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 재정비 과정에서 인경궁을 전면적으로 훼손하여 창덕궁을 중건하였다.³⁾ 이러한 추세는 孝宗 顯宗대로 이어지면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사용하는 ‘東闕’을 法宮으로 활용하는 조선 후기의 궁궐경영의 전형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인조대의 궁궐 경영은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인목왕후의 사망, 병자호란, 昭顯世子の 사망과 鳳林大君의 세자 책봉, 姜嬪의 옥사 등 연이은 정치적 사건

2) 광해군의 신궐 영건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들이 참고된다. 張志連, 1997 「光海君代 宮闕營建：仁慶宮과 慶德宮(慶熙宮)의 창건을 중심으로」 『韓國學報』86； 洪석주·박언곤, 1999 「光海君代의 宮闕 營建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21； 洪석주, 2000 『朝鮮朝 光海君代의 宮闕建築에 관한 研究：仁慶宮과 慶德宮을 중심으로』, 홍익대박사학위논문； 윤정, 2011b 「광해군대 궁궐 경영과 ‘新闕’의 영건：慶德宮의 영건과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43

3) 金東旭, 1985 「仁祖朝의 昌慶宮·昌德宮 造營」 『文化財』19

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곧 정치적 파동은 국왕 시어소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이는 상황에 따라 궁궐 영건이나 중수를 수반하였다. 따라서 궁궐 경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조대 정치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실상 인조대는 다른 왕대에 비해 정치적 격변이 많았던 시기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朋黨政治’의 운영체계라는 관점에서 붕당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거나⁴⁾ 인조대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개별적 이해에 머물고 있다.⁵⁾ 반면 인조의 입론을 분석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근대 역사학의 수립과 함께 이루어진 光海君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와 함께 이를 부정하고 반정으로 즉위하였던 인조의 정치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왕으로서 인조의 정치적 입론은 소현세자 사후 봉림대군(孝宗)의 세자 책봉에서 드러나듯이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이에 국왕의 입장을 배제한 채 당시의 정치사를 붕당 중심으로 보는 경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궁궐 경영은 국왕의 정치적 지향과 행보가 가장 첨예하게 반영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왕을 매개로 하는 정치사 연구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먼저 인조 전반기의 궁궐 경영에 대해 다루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承政院日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궐 경영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왕의 임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어소의 변동은 곧 移御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정치적 배경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록은 국왕의 임어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추적하기 어렵다.

반면 『승정원일기』는 매일 기사에 “上在某宮”과 같은 형태로 기사를 적어 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왕의 정치 운영을 정리하는 『승정원일기』의 속성상 국왕의 소재가 우선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국왕의 임어 상황

4) 吳洙彰, 1985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學』13; 李迎春, 1990 「潛治 朴知誠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清溪史學』7; 禹仁秀, 1991 「朝鮮 仁祖代 政局의 動向과 士林의 役割」 『大丘史學』41; 許捲洙, 1991 「仁祖朝 南人의 政界 進出과 西人과의 對立」 『金世漢停年紀念論叢』; 金世奉, 1994 「仁祖·孝宗代 山人勢力의 形成과 進出」 『東洋學』2; 李俸珪, 1998 「金長生·金集의 禮學과 元宗追崇論爭의 철학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11; 池斗煥, 2000 「仁祖代 君子小人 論議」 『韓國學論叢』22; 金容欽, 2006 「朝鮮 後期 政治史 研究 I: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의 變通論」, 혜안

5) 金澁, 2003 「효종대 조귀인 저주 사건과 東關 改修: 『昌德昌慶宮修理都監儀軌』를 중심으로」 『仁荷史學』10; 김인숙, 2004 「인조대의 궁중저주사건과 그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31; 김우철, 2008 「仁祖 24년(1646) 安益信 謀反 사건과 그 의미」 『韓國史學報』33

과 이어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영조대 이전 시기는 자료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⁶⁾ 특히 인조대의 경우 양적으로 극히 소략하며 인조 2년까지는 일부만 존재한다. 또한 남아 있는 기록들도 丙下日記, 臚錄 등 관문서와 李貴·朴啓賢 등 신료들의 日記, 朝報 등에 의해 후대에 편찬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인조의 동정과 관련하여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국왕의 입어 상황은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이는 실록에서 파악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다. 따라서 부분적인 사료 비판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래 『승정원일기』의 원문이 전산화되어 검색이 손쉬워진 점은 인조의 궁궐 입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인조 전반기의 궁궐 경영은 인조의 입어 상황을 통해 그 추이를 파악할 때, 다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즉위 초의 정치적 격동으로 인조의 궁궐 입어가 자주 바뀌는 시기이다.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한 후 인조 2년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난했다가 환도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차례로 불타면서 결국 광해군이 창건한 경덕궁에 입어하게 되는 과정으로 정리된다. 2기는 인목왕후 사망을 계기로 인조가 경덕궁을 떠나는 인조 10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경덕궁을 시어소로 사용하는 한편에서 인경궁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3기는 인조 14년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에 들어갈 때까지이다. 인조 10년 경덕궁을 떠난 인조는 梨峴宮을 거쳐 창덕궁으로 이어했다가 창경궁을 수리하고 이곳을 시어소로 사용하였다. 궁궐의 重修가 다시 도모되면서 인조 후반기의 궁궐 경영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각 시기별로 먼저 『승정원일기』를 통해 국왕의 입어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시기별 궁궐 경영의 내용과 이어의 정치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1-2시기를 대상으로 인조의 경덕궁 입어와 인경궁의 활용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2-3시기를 대상으로 인조가 경덕궁을 떠나 창경궁을 증수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6) 조선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선조 25년부터 다시 기록이 이루어졌지만 이괄의 난으로 다시 많은 양이 소실되었고, 영조 때 다시 화재로 손상을 입었다. 영조는 내용 대부분이 파괴된 선조와 광해군대를 제외하고 인조대부터 기록을 복구하였다. 당시 복구는 타지 않고 남은 부분을 재정리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 복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다. 영조대의 『승정원일기』 개수 작업에 대해서는 李根浩, 2004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過程의 검토』 『朝鮮時代史學報』31 참조.

2. ‘舊闕’의 소실과 ‘新闕’ 임어

1) ‘舊闕’의 소실과 慶運宮 휘철

인조 초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궁궐 임어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정리 대상은 인조 즉위부터 인조 3년 이전까지이다. 이것은 李适의 난으로 公州로 피난했던 인조가 도성에 돌아와 궁궐에 임어하기 전까지를 한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이 시기는 반정과 반란, 궁궐의 소실, 인조의 파천과 환도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시어소의 변화가 많았다. 다음 시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인조 3년 이후의 첫 궁궐 임어까지 표에 포함시켰다.

<표 1> 인조 초반(원년-2년) 궁궐 임어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		기타		비고
1	00.03.12								인조반정
2							00.03.13	00.03.20	경운궁
3	00.03.21	00.03.22							23일-29일 장소불명
4			00.04.01	00.04.09					
5					00.04.10	00.04.12			→ 창경궁
6			00.04.13	00.04.25					
7	00.04.26								→ 창경궁
8			00.04.27	00.04.30					5월1일- 9월21일 장소불명
9			00.09.22	00.09.30					10월1일-11월3일 장소불명
10			00.11.04	00.11.23					11월24일 장소불명
11			00.11.25	00.12.22					12월23일-2년 장소 불명
12					03.01.02	04.09.30			4년 10월1일 장소불명

위의 표를 통해 반정 후 인조가 창덕궁과 경운궁, 창경궁, 경덕궁 등 여러 궁궐에 임어하다가, 인조 3년 정월 경덕궁에 임어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인조의 이어 과정을 각각의 계기가 된 사건들과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은 창덕궁에 있었다. 광해군은 동왕 8년부터 인경궁과 경덕궁 등 새 궁궐의 영건에 나섰으며, 반정 직전에는 경덕궁에 이어 인경궁의 영건 공사도 완료되어 국왕의 이어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필요한 물품을 分定하는 한편 공사를 맡을 관원들을 차출하여 工作廳이라 칭하도록 하였다.⁷⁾ 하지만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조반정이 발생하였다.

표의 [1]에서와 같이 반정 당일 인조(綾陽君)는 도성 밖 延曙驛 근처의 別墅에서 반정군과 합류한 뒤 弘齋院을 거쳐 도성의 서북문인 彰義門을 통해 성내로 들어왔으며, 이어 창덕궁의 정문인 敦化門을 통해 궐내로 진입하였다. 광해군은 후원을 통해 醫官 安國臣의 집으로 도망쳤으며, 세자 역시 창덕궁을 탈출하여 莊義洞 민가에 숨었다.⁸⁾

그런데 반정군이 이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창덕궁에 불이 났다. 당시 창덕궁의 화재를 전하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大內에 불이 났다. [王(광해군)은 이미 피하여 숨었고 諸軍이 궁궐로 들어왔는데, 宮中은 빈 채 사람이 없었다. 왕을 찾지 못한 채 햇불을 잘못 놔두어 전각에 불이 옮겨 붙었다. 上(인조)이 都監軍으로 하여금 끄게 했으나 仁政殿만 홀로 남았다.⁹⁾

이 당시 반정군은 정문인 돈화문을 통해 진입하였고, 침전에 있었을 광해군은 후원을 통해 빠져나갔다. 따라서 반정군의 수색도 침전에서 후원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실제 『인조실록』의 기사에는 군사들이 햇불을 들고 앞다투어 寢殿으로 들어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이 발에 옮겨 붙어 전각이 연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¹⁰⁾ 침전 쪽에서 일어난 화재는 후원과 便殿 방향으로 번졌을 것이다. 大內 중에서 인정전만 남은 것을 볼 때 침전 외에 편전과 東宮까지 소실되었고, 궁궐의 외곽에 위치한 몇몇 궐내 각사가 보존되었다.¹¹⁾

7) 『光海君日記』권185, 광해군 15년 정월 20일(辛亥)

8) 『光海君日記』권187, 광해군 15년 3월 12일(壬寅)

9) 『光海君日記』권187, 광해군 15년 3월 12일(壬寅), “大內火[王既避匿 諸軍入宮 宮中虛無人 索王不得 仍誤遺炬火 延燕殿宇 上命都監軍撲滅 仁政殿獨存 (후략)]”

10)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13일(癸卯), “哨官李沆開敦化門 義兵直入闕內 衛士皆散 光海由後苑門出走 兵人爭入寢殿 燃炬搜覓 火延亂簾 因燒諸殿”

인조는 궁궐을 장악한 후 인정전에서 신료들을 소집하였지만 그곳에서 바로 즉위하지는 않았다. 이는 大妃(仁穆王后)가 창덕궁으로 오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조는 창덕궁 진입 후 李貴 등을 경운궁으로 보내 대비에게 반정 사실을 알리고 창덕궁으로 모셔오고자 하였으나 대비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인조가 백관을 거느리고 직접 경운궁으로 갔으며, 광해군도 함께 압송되었다.

인조는 경운궁에서 광해군에 의해 位號가 박탈된 인목왕후를 대비로 복위시킨 후 그의 명령을 받아 즉위하였다.¹²⁾ 그리고 표의 [2]와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주일간 경운궁에 머물면서 반정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처리하였다. 이때 광해군과 폐세자를 喬桐과 江華에 안치하도록 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¹³⁾

이어 표의 [3]과 같이 인조는 3월 21일 인목왕후와 함께 창덕궁으로 돌아왔다.¹⁴⁾ 이 날 이후 『승정원일기』의 기사가 부실하여 인조가 어느 곳에 임어했는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창덕궁의 침전과 편전이 모두 불탄 상황이므로 창경궁으로 이어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인조실록』에는 明政殿과 明光殿, 文政殿 등 창경궁의 전각에서 신하들을 인견하고 경연을 열거나 사신을 만난 기록이 확인된다.¹⁵⁾ 이로 보아 표의 [4]와 같이 반정 후 경운궁에 갔다가 창덕궁으로 돌아왔으나, 실제로는 창경궁에서 정사를 보며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의 [5]와 같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경덕궁에 머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록에는 이와는 다른 정황이 확인된다. 10일 문정전에서 『論語』를 진강했으며,¹⁶⁾ 12일에도 명광전에서 都元帥 張晩을 만나고 문정전에서 晝講하였다.¹⁷⁾ 이후 표의 [6]의 창경궁 임어와 연계하여보면 경덕궁은 창경궁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표의 [7]과 같이 4월 26일에는 창덕궁에 임어난 기록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이어를 유추할 만한 특별한 동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國忌日로 常參과 經筵을 중지하였지만, 일상적인 정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⁸⁾ 따

11) 이러한 상황은 인조 10년 다시 창덕궁에 이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각사 건물이 남아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2)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13일(癸卯), “上舉義兵 奉王大妃復位 以大妃命 卽位于慶運宮”

13) 『承政院日記』1책, 인조 원년 3월 20일(庚述)

14)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21일(辛亥)

15) 3월 22일 明政殿에서 毛文龍의 差官인 應時泰을 접견한 기사와 領議政 李元翼을 접견한 기사가 보인다(『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22일(壬子)). 3월 23일 明光殿에서 영의정과 호조판서·참판을引見하였으며(『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23일(癸丑)), 3월 27일에 文政殿에서 朝講을 열었다(『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27일(丁巳)).

16)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4월 10일(己巳)

17)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4월 12일(辛未)

라서 그대로 창경궁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인조 원년 12월 23일부터 인조 3년 1월 1일까지는 인조의 임어 궁궐을 확인할 수 없다. 『승정원일기』는 인조 원년 12월 30일까지 정리된 후 인조 3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는 이괄의 난으로 해당 부분이 모두 소실되어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실록을 통해 인조가 창경궁을 나와 공주로 피난하였다가 환도 후 경덕궁으로 이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조 원년 12월 23일부터 2년 2월 8일까지 창경궁에 머물렀다. 이는 실록의 經筵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조 2년 정월까지 문정전에서 경연을 연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명광전에서 경연을 열거나 신료를 접견한 기사도 보인다.¹⁹⁾ 경덕궁과 창덕궁으로 이어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창경궁에 계속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인조 2년 1월 24일 평안도관찰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향해 진격하였다.²⁰⁾ 조정에서는 피난을 논의하였는데, 처음에는 강화로 가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반란 소식을 접한 인조는 대비를 먼저 강화로 보낸 뒤 자신은 도성에 남아 상황에 따라 뒤따라가거나 守城하겠다는 뜻을 밝혔다.²¹⁾ 그러나 반란군이 과죽지세로 開城까지 이르러 강화로 가는 방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御營使 李貴가 맡았던 臨津의 군사가 무너지고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너면서 공주 파천이 급작스럽게 결정되었다.²²⁾

2월 8일 인조는 도성을 떠나 공주로 떠났는데, 당시 상황을 전하는 실록 기사는 다음과 같다.

밤에 예조판서 李廷龜가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먼저 떠나고, 慈殿과 中殿이 모두 駕輦를 타고 나갔다. 조금 뒤에 상이 小輿를 타고 明政門으로 나가 말을 타고 떠났는데, 中宮의 內人和 侍臣은 간혹 걸어가는 자도 있었다. 崇禮門에 이르러 승지 洪瑞鳳이 앞에 있다가 그의 하인에게 돌로 자물쇠를 부수게 하여 나갔다.²³⁾

18) 『承政院日記』1책, 인조 원년 4월 26일(乙酉)

19) 명광전에서는 원년 7월 11일, 김류와 이귀를 접견한 기록이 확인되며(『仁祖實錄』권2, 인조 원년 7월 11일(己亥)), 2년 정월 24일까지 인조는 문정전에서 『論語』를 강하였다(『仁祖實錄』권4, 인조 2년 정월 24일(己卯)).

20)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정월 24일(己卯)

21)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정월 25일(庚辰)

22)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8일(壬辰)

23)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8일(壬辰), “夜 禮曹判書李廷龜 奉廟社主先行 慈殿中殿 皆乘駕輦而出 小頃上乘小輿 出明政門 騎馬而行 中宮內人及侍臣 或有徒行者 行到崇禮門 承旨洪瑞鳳在前 使其下人 以石撞破鎖鑰而出”

명정문은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의 정문으로 궁궐 정문인 弘化門 안에 있다. 곧 인조는 창경궁에 있다가 공주로 출발한 것이다. 여기는 승례문(남대문)을 통해 한강에 이르렀으며 배를 타고 공주로 이동하였다.

한편 인조 일행이 떠난 후 도성을 점령하였던 반란군은 12일 관군에게 패한 뒤 水口門을 통해 도주하였다.²⁴⁾ 다음날 조정은 좌의정 尹昉으로 하여금 먼저 도성에서 백성을 鎮撫하게 하였다.²⁵⁾ 인조는 아직 이괄 등이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공주로 출발하여,²⁶⁾ 2월 14일 공주에 도착하였다.²⁷⁾ 그리고 이괄 등에 대한 처리가 끝나자 18일 공주를 떠나 22일 良才驛을 거쳐²⁸⁾ 도성으로 돌아왔다.

인조는 승례문으로 들어와 太廟에 가서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 뒤 저녁에 경덕궁에 들어갔다.²⁹⁾ 앞서 창경궁을 나섰던 인조가 환도 후 창경궁으로 가지 못한 것은 이곳이 반란 과정에서 화재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창경궁의 화재에 대해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御舟가 강물 가운데 떠서 도성을 돌아보니 궁궐이 亂民에게 불태워져 연기와 불꽃이 이미 하늘을 덮었다.³⁰⁾

위에서 불탄 궁궐이 어디인지 직접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인조 일행이 바라본 상황을 서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머물고 있던 창경궁에 대한 서술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도성에는 경덕궁 외에도 경운궁과 인경궁이 있었다. 그럼에도 굳이 경덕궁으로 들어간 것은 다른 궁궐이 임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선조 말부터 이궁으로 수립된 경운궁은 당시 궁궐로서 위상이 폐기된 상태였다.

광해군 후반 인목왕후를 유폐하면서 궁궐로서 위상을 격하시키며 西宮으로 불리웠으며, 궁궐에 배설되었던 分司를 철거하여 경덕궁으로 移設하였다.³¹⁾ 하지만 궁궐의 중심 영역과 건물은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반정 직후 인조는 이 권역까지 대

24)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12일(丙申)

25)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13일(丁酉)

26)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13일(丁酉)

27)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14일(戊戌)

28)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22일(丙午)

29)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22일(丙午), “午 大駕自崇禮門入 士女傾城 夾路聚觀 直詣太廟 奉安神主 行遷安慰安祭 晡時 入慶德宮”

30) 『仁祖實錄』권4, 인조 2년 2월 8일(壬辰), “御舟中流 回望都城 則宮闕爲亂民所燒 烟焰已漲天矣”

31) 윤경, 앞의 논문(2011a) 참조.

부분 철거하여 사실상 궁궐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인조 원년 7월 인조는

경운궁은 지금 빈 골짜기가 되었으니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 先王朝의 寢殿³²⁾
두 곳 외에는 모두 그 本主에게 환급하라.³³⁾

라고 명령하였다. 위의 기사는 『승정원일기』의 것으로서 인조 즉위 초 경운궁이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인조는 이곳을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전각만 남긴다는 것은 결국 궁궐을 없앤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곳이 인목왕후가 유폐된 곳으로서 광해군의 패륜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本主 환급 조치에 대해 『인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이 경운궁 소속 기옥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다. 당초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 선조가 돌아온 뒤 임시로 정릉동의 민가에 거처하면서 ‘慶運宮’이라 불렀는데, 그 뒤에 광해군이 大妃를 유폐시키고 ‘西宮’이라 일컬었다. 이때에 이르러 先祖의 寢殿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本主에게 돌려주라고 하교하였다.³⁴⁾

위의 기록은 경운궁의 훼손 조치를 西宮의 사적과 연결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곧 경운궁 훼손이 인목왕후 유폐의 사적이었기 때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조의 훼손 조치로 경운궁은 결국 대한제국 때 복구될 때까지 두 개의 전각만 남아 있게 되었다.³⁵⁾

실상 경운궁은 인목왕후가 왕비로 入宮한 곳이자 선조가 사망한 곳이었다. 다시 말해 경운궁은 선조의 제비로서 인목왕후의 위상을 표상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인목왕후를 유폐하고 대비의 위호를 박탈함으로써 경운궁은 인목왕

32) 탈초본에는 ‘廢殿’으로 되어 있으나 실록 기사와 내용을 참고할 때 ‘寢殿’의 誤讀으로 파악된다.

33) 『承政院日記』2책, 인조 원년 7월 13일(辛丑), “慶運宮今爲空谷 似是無用 先王朝廢寢殿兩處外 並遷給其主”

34) 『仁祖實錄』권2, 인조 원년 7월 12일(庚子), “上命以慶運宮所屬家舍 遷給其主 初壬辰之亂 宮闕灰燼 官廟回鑾之後 權御于貞陵洞閭家舍 謂之慶運宮 後光海幽閉大妃 稱以西宮 至是下教 先朝寢殿兩所外 餘皆還于本主”

35) 후일 영조는 이곳에 행차하여 두 전각에 대해 각각 昔御堂과 卽祚堂이라는 현판을 걸게 하였다. 이것은 각각 仁穆王后가 있던 곳과 인조가 즉위한 곳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전각은 선조의 寢殿이었던 만큼 실제 편액이 의미하는 사적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영조가 경운궁 터에 남은 두 전각을 통해 인목왕후와 인조의 사적을 표상하기 위해 설정한 인식으로 이해된다. 경운궁에 대한 영조의 인식과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후에 대한 광해군의 패륜적 행위를 표상하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반정 당시 인목왕후가

나를 別宮에 유폐시키니 이 몸은 오랫동안 깊은 궁 안에 지내어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이런 일을 보게 되었소.³⁶⁾

라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이제 인목왕후에게 경운궁은 왕비로서 지낸 곳이 아니라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別宮’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운궁은 광해군 폐정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고, 인조는 이를 훼손함으로써 폐정을 철회한다는 당시의 정책 기조를 표상할 수 있었다. 다만 경운궁은 宣祖의 사적이기도 했던 만큼 이것까지 전면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선조의 침전을 남김으로써 최소한의 의미만 보존한 것이다.³⁷⁾

결국 창덕궁과 창경궁이 모두 소실되고 경운궁도 훼손되었기 때문에 환도한 인조가 머물 수 있는 궁궐은 인경궁과 경덕궁 등 광해군에 의하여 창건된 신궐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중 인경궁은 폐정의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임어하는 데 곤란하였다.

본래 신궐은 광해군이 동왕 8년부터 영건하기 시작한 離宮인 인경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곧이어 그 인근에 西別宮을 함께 짓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점차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궁으로 수렴되었고 이름도 경덕궁이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조대에는 조선초기에 창건한 창덕궁·창경궁을 ‘舊闕’로, 광해군이 영건한 두 궁궐을 ‘新闕’로 각각 지칭하면서 대비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때 광해군의 신궐 영건은 인경궁에서 시작되었고, 반정 당시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경덕궁은 인경궁 영건에 부수적으로 시작되었고 먼저 완료되었다. 그 결과 궁궐 영건을 폐정으로 비판할 때 그 초점은 인경궁에 놓이게 되었다.

인조 3년 諫院의 언급에는 이러한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인경궁은 백성의 膏血을 짜내 10년을 경영했으나, 反正한 뒤 바로 毀撤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한갓 守直하는 폐단만 끼치고 있습

36)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13일(癸卯), “幽囚我別宮 寡身久處深宮 人間消息 邈不聞知 不意今日 乃見是事”

37) 이후 이곳은 조선후기 궁방인 明禮宮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大韓帝國의 수립과 함께 慶運宮이 중건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니다. 窓櫺과 鐵物은 태반이 도둑맞았고 쓰다 남은 목재와 기와도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전각을 철거하고 쓰다 남은 材瓦와 함께 和賣하며 그 집터는 本主에게 돌려주면 민심이 기쁘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비용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³⁸⁾

위에서 인조 3년 당시 인경궁을 사용하지 않아 피폐한 상황과 더불어 이것이 광해군 폐정의 표상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경궁은 광해군이 10년의 공역으로 백성을 괴롭힌 실체였던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경덕궁 영건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외형적으로는 인경궁을 매개로 궁궐 영건의 폐정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신료들은 인경궁에 대해 경운궁과 마찬가지로 훼손하고 그 터를 本主에게 還給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조는 인목왕후 유폐와 관련되었던 경운궁은 훼손하였지만 인경궁은 그대로 보존하였다. 하지만 폐정으로 지목된 궁궐에 바로 임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은 경덕궁에 임어했던 것이다.³⁹⁾

이상에서 반정으로부터 이괄의 난에 이르는 인조 즉위 초기 궁궐 경영의 추이는 창덕궁과 창경궁 등 舊闕이 모두 불타고 경운궁마저 훼손됨으로써 결국 新闕에 임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결과적으로 인조 초의 궁궐 경영은 신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인조 10년 인조가 경덕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慶德宮 臨御와 仁慶宮 활용

인조 3년부터 10년까지 인조의 궁궐 임어 현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이것은 『승정원일기』 기록이 다시 시작된 때부터 창경궁을 수리하고 이어할 때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잡은 것이다.

38) 『仁祖實錄』 권8, 인조 3년 2월 26일(乙巳), “臣等竊念仁慶之宮 剝民膏血 經始十年 反正之後 卽宜毀撤 而今尙存之 徒貽守直之弊 窓櫺鐵物 大半偷竊 用餘材瓦 日就朽敗 今若撤毀殿閣 并其用餘材瓦而和賣 還給家基於本主 則非但民心之悅服 必有大補於迎接之用”

39) 일반적으로 인조가 인경궁이 아닌 경덕궁에 임어한 것에 대해서는 경덕궁이 본래 元宗의 潛邸였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光海君日記』의 입론에 따른 것이지만, 경덕궁이 원종 잠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조 10년 원종 추존 이후에 이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표 2〉 인조 3년-10년 인조의 입어 현황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		인경궁/기타		입어기 사건
12					03.01.02	04.09.30			4년10월1일 장소불명
13					04.10.02	05.01.25			
14							05.01.26	05.01.29	강화행궁으로 이어
15							05.02.01	05.04.09	강화행궁
16							05.04.10	05.04.12	경덕궁으로 이어
17					05.04.13	08.03.16			
18							08.03.17	08.03.18	인경궁
19					08.03.19				
20							08.03.20	08.03.23	인경궁. 22일 풍정례를 행함
21					08.03.24	10.08.09			
22							10.06.10	10.06.28	인경궁. 인목대비 사망
23					10.06.29	10.10.27			
24							10.10.28	10.11.09	→ 이현궁
25	10.11.10	11.07.25							→ 창덕궁

위의 표를 통해 해당 기간 인조가 경덕궁을 주된 시어소로 사용하면서 간헐적으로 인경궁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은 丁卯胡亂을 기점으로 다시 두 시기로 나뉜다. 정묘호란 이전까지는 경덕궁에만 입어하였지만, 정묘호란 이후에는 경덕궁을 시어소로 사용하면서 간헐적으로 인경궁에 입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양상에 그것에 반영된 정치적 의미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의 [12]와 같이 인조는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파천했다가 돌아온 뒤 경덕궁에 머물렀다. 시어소가 확인되지 않는 인조 4년 10월 1일 역시 경덕궁에 머물렀던 것

으로 보인다. 이 날 大司憲과 持平의 啓가 올라오는 등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궁궐 이어와 같은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는다.⁴⁰⁾

이어 표의 [13]과 같이 인조 5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었다. 이 해 1월 21일 대비와 중전이 종묘·사직의 신주와 함께 먼저 강화로 떠났고,⁴¹⁾ 인조는 26일 도성을 나와⁴²⁾ 陽川縣을 경유하여 29일에 강화도로 건너가客舍에 머물렀다.⁴³⁾

그리고 표의 [14]와 같이 인조는 2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江華行宮에 머물렀다. 하지만 화친이 수립되면서 환도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分朝하여 내려갔던 소현세자 역시 3월 23일 전주에서 강화로 돌아왔다.⁴⁴⁾ 이에 인조는 다음 달 10일 사이에 먼저 京都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⁴⁵⁾

이어 표의 [15]에서 드러나듯이 인조는 예정대로 4월 10일 강화행궁을 출발하여 환도 길에 올랐다. 일행은 甲串을 건너 通津과 陽川을 경유하여 12일에 鷺梁에서 한강을 건너 승례문으로 들어왔다.⁴⁶⁾ 인조는 곧장 종묘로 가서 위안제를 지내고 경덕궁으로 돌아왔다.⁴⁷⁾ 한편 강화에 남아 있던 대비는 20일 후 돌아왔다. 인조는 승례문 밖에 나가 마중하고 함께 경덕궁으로 돌아왔다.⁴⁸⁾ 이처럼 인조는 정묘호란으로 강화도에 파천하였지만, 도성에 돌아온 후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경덕궁에서 지냈다.

이후 인조는 경덕궁에 주로 머물렀지만 임어가 길어지면서 인경궁을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인경궁 임어가 대개 대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조의 인경궁 임어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인조 8년 3월 17일의 일이다. 표의 [18]와 같이 이 날 인조는 인경궁에 머물던 대비에게 문안을 갔다가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본래는 당일로 환궁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쏟아지자 그대로 묵게 된 것이다.⁴⁹⁾ 표의 [19]와 같이 인조는 이튿날 경덕궁으로 돌아왔다.⁵⁰⁾

40) 『承政院日記』16책, 인조 4년 10월 1일(庚子)

41) 『承政院日記』17책, 인조 5년 정월 21일(己丑)

42) 『承政院日記』17책, 인조 5년 정월 26일(甲午)

43) 『承政院日記』17책, 인조 5년 정월 29일(丁酉)

44) 『仁祖實錄』권15, 인조 5년 3월 23일(庚寅)

45) 『仁祖實錄』권15, 인조 5년 3월 28일(乙未)

46) 『仁祖實錄』권16, 인조 5년 4월 12일(戊申)

47) 『仁祖實錄』권16, 인조 5년 4월 12일(戊申)

48) 『承政院日記』17책, 인조 5년 4월 26일(壬戌), “慈殿還都時 上祗迎于崇禮門外 午時 還宮”

49)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3월 17일(丁酉)

50) 『承政院日記』29책, 인조 8년 3월 18일(戊戌)

이 당시 대비가 인경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豊呈禮를 위한 것이었다. 풍정례는 인조 2년에 이미 設行된 바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열기로 하면서 장소를 인경궁 重輝堂으로 정하였다. 이에 해당 전각과 内外의 命婦가 들어올 전각 일부를 수리하도록 하였다.⁵¹⁾

그런데 신료들은 풍정례를 인경궁에서 시행하는 데 반대하였다. 司諫 金光炫은

甲子年 豊呈 때 장소가 부족한 근심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또 仁慶宮을 수리하려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국가가 무시하고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에 일이 많고 재정이 고갈된 상태인데, 어찌 허비해서는 안 될 재물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⁵²⁾

라고 비판하며 머무르던 경덕궁에서 그대로 행사를 치를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甲子年은 인조 2년으로서 이 해 10월에 인조는 대비를 위해 풍정례를 행한 바 있다.⁵³⁾ 반정으로 즉위한 뒤 인목왕후에 대한 의례를 통해 즉위 명분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실록에는 풍정례를 어디서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승정원일기』 역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창경궁에 임어하고 있었고 인접한 창덕궁이 불탄 상황이었으므로 그대로 창경궁에서 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광현은 이러한 전례에 따라 그대로 경덕궁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당시는 후금이 명의 수도를 포위하고 있다는 풍문이 도는 등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료들은 인경궁을 수리하고 풍정을 위해 儀物을 만드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 반발하였다.⁵⁴⁾ 하지만 인조는 중지를 요청하는 신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인조의 뜻에 따라 인경궁의 수리가 이루어졌고, 대비는 풍정례를 위해 11일 먼저 인경궁으로 이어하였다.⁵⁵⁾

인조는 14일 직접 대비에게 문안을 갔다. 小輿를 타고 後苑의 北門을 나가 인경궁으로 갔다가 저녁에 환궁하였다.⁵⁶⁾ 인경궁과 경덕궁은 별도의 궁궐로 영건하였지만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大路를 거치지 않고 北門인 武德門을 통해 직접 오갈

51) 『承政院日記』29책, 인조 8년 정월 9일(己丑)

52)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2월 14일(甲子), “且甲子豊呈時 未聞有處所不足之患 今年則又有仁慶宮修理之教 雖國家無事 財力殷富 不必別設於他處 況今國家多事 財力殫竭 豈宜浪費不當費之財乎”

53) 『仁祖實錄』권7, 인조 2년 10월 9일(庚寅)

54)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2월 20일(庚午)

55)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3월 11일(辛卯)

56)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3월 14일(甲午)

수 있었다. 인조는 3월 20일 다시 인경궁으로 가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다가 22일에 풍정례를 거행한 뒤 이튿날 환궁하였다.⁵⁷⁾

이처럼 인조가 조정의 비판적인 기저에도 불구하고 인경궁에서 풍정례를 강행한 것은 이를 매개로 인경궁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월이 모두 소실된 상황에서 경덕궁에 상주하던 인조로서는 공간적 제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인접한 인경궁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광해군 폐정의 상징이라는 데 부담을 가졌지만, 경덕궁 임어가 길어지면서 별도의 궁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선뜻 구월 중건에 나서기 어려운 사정 이었던 만큼, 인접한 인경궁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인조가 국왕 내지 왕실 차원에서 인경궁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인조 4년 모친 啓運宮(仁獻王后 具氏)의 상례에서 인경궁에 魂殿을 설치한 것이었다. 계운궁의 혼전은 定遠大院君의 신주가 있는 梨峴宮(啓運宮)에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계운궁이 좁아 적합한 곳이 없다며 인경궁에 설치하도록 하였다.⁵⁸⁾ 당초 인조의 모친은 이괄의 난으로 인조와 함께 피난했다가 돌아와 그대로 경덕궁에서 지냈으며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경덕궁에 殯殿을 두었는데, 인조는 이를 연장하여 인경궁에 혼전을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료들은 이현궁에 혼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간은 궐내에 빈전을 둔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전제하며,

인경궁은 험어려야 할 뿐이지만 명칭은 闕입니다. 綾原君이 喪主로서 3년 동안 朝夕 饋奠을 주관하면서 여기에서 지내는 것은 事體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闕內로 返魂한다면 私廟라고 할 수 없으니, 근일 조정에서 쟁론하는 일과 어긋납니다. 啓運宮이 좁다면 편의에 따라 더 축조하여 魂宮으로 삼는 것이 禮에 합당할 듯 합니다.⁵⁹⁾

라고 지적하였다. 곧 인경궁은 대궐이기 때문에 능원군이 이곳에 거처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궐내에 혼전을 두면 私廟라고 할 수 없다는 입론이었다. 인경궁에 혼전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定遠君을 私親으로 간주하여 大院君으로 추송한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57)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3월 22일(壬寅)

58) 『仁祖實錄』권11, 인조 4년 2월 7일(庚辰)

59) 『仁祖實錄』권11, 인조 4년 2월 7일(庚辰), “仁慶宮 雖當毀之宮 而名則闕也 綾原君以喪主 三年之內 當主朝夕 饋奠 寢處於此 非但事體未安 闕中返魂 則不可謂之私廟 與近日朝廷所爭之事相左 啓運宮若狹窄 則隨便添造 以爲魂宮 似當合禮”

그러나 인조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인경궁은 이름은 비록 宮闕이지만 祖宗의 法宮이 아니다. 癸亥年 이후로各司의 典僕들도 간혹 거처하였으며 하나의 버려진 빈터가 되었다. 이곳에 임시로 魂宮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綾原君은 바깥 行廊에 들어가 거처하는 것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⁶⁰⁾

인조는 인경궁이 궁궐이기는 하지만 祖宗의 法宮이 아니므로 명분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하나의 버려진 터”로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당시 인경궁에는 鑄錢廳이 설치 운영되는 등⁶¹⁾ 빈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인조는 이를 국왕 내지 왕실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인조는 長子인 자신이 직접 喪主가 되고자 하였으나 왕위를 계승한 국왕이 私親의 상주가 될 수 없다는 신료들의 반대에 밀려 동생 綾原君이 상주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능원군은 이미 선조와 仁嬪 사이의 장남인 백부 義安君의 양자로 들어간 상태였지만, 이를 파기하고 돌아와 상례를 주관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경궁의 활용과 관련된 신료들과 국왕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료들은 인경궁에 대해 광해군 폐정의 상징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훼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그곳이 대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국왕이 이곳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국왕이 계속 활용한다면 그 대로 궁궐로 굳어지므로 훼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조는 인경궁이 祖宗의 法宮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웠다. 따라서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예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인경궁을 유지하며 적절히 활용하려는 인조의 지향을 보여준다. 신료들이 인경궁에 대해 헐어버릴 곳이라고 하면서도 대궐이라고 명분을 내세운 것이나 인조가 법궁은 아니라며 왕실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 것은 당시 궁궐 경영에서 인경궁이 가지는 복합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인조 즉위 후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인경궁에 대해 인조는 계속 광해군 폐정의 상징이라는 데 구애받기보다는 궁궐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이 때 궁궐로서 인경궁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인 매개가 된 것이 바로 대비였다.

60) 『仁祖實錄』권11, 인조 4년 2월 7일(庚辰), “仁慶宮 名雖宮闕 非祖宗法宮 自癸亥以後 各司典僕 亦或入處 爲一空棄之地 權設魂宮於此處 未爲不可 綾原君則入接於外處行廊 亦無所妨”

61) 『承政院日記』12책, 인조 4년 3월 6일(己酉), “鑄錢廳 設於仁慶宮 而今者魂宮近處 仍設未安 且詔使且到 經費不足 不得已限詔使回還間 停設之意 敢啓”

인조 자신이 직접 활용하는 것은 신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지만, 사정에 따라 대비가 이곳을 이용하는 것을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문안을 명분으로 자신이 행차한다면, 인경궁은 점차 국왕이 사용하는 궁궐로 확정되어 나갈 수 있었다.

대비는 인조 7년 인경궁의 椒井에 목욕하러 가서⁶²⁾ 여러 날 묵은 일이 있었다. 광해군대 인경궁의 건립 당시 椒水別堂과 그 인근에 있었던 別殿들을 건립한 기사가 확인되는데,⁶³⁾ 대비는 이곳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는 당일 승지를 보내 문안하였으며,⁶⁴⁾ 다음날 인경궁에 직접 가서 문안하고 돌아왔다.⁶⁵⁾ 그리고 이듬해 다시 대비를 명분으로 풍정례를 인경궁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인경궁을 왕실의 공간임을 재확인하고 활용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한편 신료들은 인조가 인경궁에 행차하는 방식과 그곳에 묵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풍정례에 앞서 인조가 인경궁에 행차했던 17일에 비로 인해 그대로 묵게 되자 正言 李尙質은 이튿날

武德門으로 小輿가 거동한 것도 이미 매우 구차한 일인데, 어제 비로 인해 환궁하지 못한 것은 일이 더욱 미안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형세가 꼭 맑게 갠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찍 法駕를 갖추어 正路로 환궁하십시오.⁶⁶⁾

라고 하여 서둘러 환궁할 것을 청하였다. 여기서 이상질은 인조가 인경궁에 묵는 것 자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조가 小輿를 타고 무덕문을 통해 인경궁으로 간 것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서둘러 환궁할 것을 청함과 아울러 法駕를 타고 正露를 통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조는 夾路, 곧 무덕문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종래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시어소인 경덕궁을 토대로 인경궁을 보는 국왕과 신료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조가 소여를 타고 무덕문을 통해 인경궁으로 간 것은 길이 단축되는 편의도 있지만,⁶⁷⁾ 근본적으로 인경궁이 경덕궁과 하나의 궁궐 경역을 구성하는 현실을 반

62) 『仁祖實錄』권21, 인조 7년 7월 27일(庚戌)

63) 『光海君日記』권144, 광해군 11년 9월 1일(庚辰)

64) 『仁祖實錄』권21, 인조 7년 7월 27일(庚戌)

65) 『仁祖實錄』권21, 인조 7년 7월 28일(辛亥)

66) 『仁祖實錄』권22, 인조 8년 3월 18일(戊戌), “武德門小輿舉動 已極苟簡 昨因雨不得還宮 事甚未安 今日雨勢 亦難必其快霽 請早備法駕 由正路還宮”

67) 3월 20일 豊포를 위해 다시 인경궁에 행차할 때와 22일 행사를 치르고 이튿날 환궁할 때 인조가 어떤 방식과 경로를 이용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와 실록 모두에 행차에 관한 구체적인

영하는 것이다. 실제 이것은 당초 광해군이 두 궁궐의 영간을 통해 구성하였던 운영체제이기도 하였다. 인조는 인경궁을 활용하게 되면서 광해군과 마찬가지로 경덕궁과 연계하여 인경궁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가를 타고 正路를 통해 환궁한다는 것은 인경궁이 경덕궁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표상한다. 신료들은 풍정을 위해 부득이 공간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경궁을 궁궐로 활용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비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이 서둘러 환궁하라고 요구한 것은 인경궁이 행사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그칠 뿐, 국왕이 묵을 곳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대비적인 인식으로 볼 때 인조의 조치는 인경궁을 국왕이 사용할 궁궐로 확정지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조의 궁궐 경영은 인조 10년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표의 [22]와 같이 대비의 건강이 악화되자 급히 인경궁으로 이어하도록 한 것이다. 6월 6일 인조는 대비를 무덕문을 통해 인경궁으로 이어하도록 할 뜻을 밝히고 택일도 록 하였다.⁶⁸⁾ 승정원에서는 인경궁이 가깝더라도 더운 날씨에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인조는 가까워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행하였다.⁶⁹⁾

8일 인조는 다시

慈殿과 大內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오늘밤에 仁慶宮으로 이어하고자 하니 이 뜻을 兩司에 알려라.⁷⁰⁾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대비는 인경궁으로 옮겨갔으며,⁷¹⁾ 인조 역시 인경궁으로 이어하였다.⁷²⁾ 대비는 20여일 후인 6월 28일 인경궁 欽明殿에서 사망하였다. 빈전은 사망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조는 당일 상여를 경덕궁으로 옮겨 빈전을 설치하였다.⁷³⁾

인조는 이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무덕문을 통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68) 『承政院日記』37책, 인조 10년 6월 6일(壬申)

69) 『承政院日記』37책, 인조 10년 6월 7일(癸酉)

70) 『仁祖實錄』권26, 인조 10년 6월 8일(甲戌), “慈殿大內有不可不移之事 今夜欲移御于仁慶宮 此意言于兩司”

71) 『仁祖實錄』권26, 인조 10년 6월 9일(乙亥)

72) 『承政院日記』37책, 인조 10년 6월 9일(乙亥), “上在慶德宮 寅時 移御仁慶宮 停常參經筵”

73) 『仁祖實錄』권26, 인조 10년 6월 28일(甲午)

이곳에는 殯殿을 설치할 수 없다. 초9일에 이어할 때에 의거하여 訓練都監에 명령하여 높이 布帳을 설치하고 어둠을 타고 慶德宮으로 받들어 모셔라.⁷⁴⁾

위에서 인조는 빈전을 인경궁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인조가 앞서 인경궁으로 이어할 때와 마찬가지로 포장을 높이 설치하고 어둠을 타서 이동한 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앞서 대비의 인경궁 이어나 상여의 경덕궁 이송이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조 10년 인목대비의 상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인조의 인경궁 이어는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인조는 승정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중의 대비를 인경궁으로 옮기도록 하였고, 자신도 이어하여 대비의 사망 때까지 머물렀다. 그 이유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자전과 대내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인조와 대비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비 사망 후 당일로 상여를 경덕궁으로 옮겨 빈전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인조는 인경궁에 빈전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것은 당초 인경궁으로 들어간 것이 단순히 병중에 避寓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더구나 이 일을 계기로 인조가 경덕궁을 떠나 舊闕로 이어하게 되는 것에서도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3. ‘舊闕’ 移御와 重修

1) ‘舊闕’ 移御의 배경

경덕궁을 시어소로 삼고 인경궁을 활용하던 인조의 궁궐 경영은 인조 10년 인목 왕후가 사망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후 병자호란으로 도성을 떠나 남한 산성에 들어갈 때까지 인조의 궁궐 입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4) 『承政院日記』37책, 인조 10년 6월 28일(甲午), “此處不可設殯殿 依初九日移御時 令訓練都監 高設布帳 乘昏奉移于慶德宮 而奉移之具 如素綿楮樣 急急造作待令 擔持則令內官爲之”

〈표 3〉 인조 10-14년 궁궐 입어 현황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		인경궁/기타		비고
23					10.06.29	10.10.27			
24							10.10.28	10.11.09	이현궁
25	10.11.10	11.07.25							→ 창덕궁. 창경궁 수리
26			11.07.26	11.08.05					→ 창경궁
27	11.08.06								
28			11.08.07	11.09.12					
29	11.09.13								
30			11.09.14	11.10.21					
31					11.10.22				
32			11.10.23	12.06.21					
33					12.06.22				
34			12.06.23	12.07.08					
35					12.07.09				
36			12.07.10	13.12.12					
37	13.12.13								
38			13.12.14	14.05.11					
39					14.05.12				
40			14.05.13	14.05.14					
41							14.05.15	15.01.30	남한산성

인조는 대비의 상례를 기점으로 구궐로 이어하였고, 이후 병자호란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잠시 경덕궁에 입어할 때까지 줄곧 구궐에 머물렀다. 그런데 구궐은 인조 초에 모두 소실되고 일부 전각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인조의 입어는 전각의 수리와 영건을 수반하여야 했다. 이는 곧 선조대 후반부터 시도된 舊闕의 重修가 다시 모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조 10-14년의 궁궐 경영은 인조가 경덕궁을 떠나 구궐에 입어하게 되는 배경과 구궐 입어에 따른 전각 중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구궐 입어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구궐 중수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표의 [23]과 같이 인조는 대비의 상여와 함께 경덕궁으로 돌아와 상례를 치렀다. 인조가 경덕궁의 빈전에서 상례를 치루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실록에 나타나 있다.

상이 경덕궁 대왕 대비의 빈전 곁에 있었다. 寅時에 襲奠을 행하였다. 백관은 모두 延廣門 밖에서 擧臨하였으며, 빈전도감의 執事官과 승지는 玄明門 밖에서 거립하였다.⁷⁵⁾

이상과 같이 인조는 경덕궁에 빈전을 설치하고 상례를 거행함으로써 인경궁에서의 이어를 지우고 자신의 시어소였던 경덕궁에서의 상례를 치를 수 있었다. 10월 6일 발인이 이루어졌으며,⁷⁶⁾ 返魂하여 南別殿에 혼전이 마련되었다. 동년 11월 22일 都監 관원들에 대한 포상이 요청되는 것에서⁷⁷⁾ 이 즈음에 대비의 상례가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의 [24]와 같이 인조는 10월 28일 경덕궁을 떠나 梨峴宮으로 옮겼다. 대비의 상례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시어소를 바꾼 것이다. 앞서 인조가 대비와 함께 인경궁으로 이어했다가 상여와 함께 경덕궁에 돌아왔던 상황과 연결해 보면, 대비의 사망을 전후하여 인조의 동정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조의 이현궁 이어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비 사망 직후 벌어진 告變과 저주 사건이었다. 대비의 혼전이 마련된 직후 懷恩君 李德仁이 고변하였다. 그 내용은 선조의 아들인 慶昌君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연루된 洪驥의 供招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臣의 妾이 臣에게 말하기를, “동내의 臨海君 집의 奴妻가 가끔 출입하는데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므로 妾이 자세히 물으니 답하기를, ‘慶昌君이 우리 宮의 養子(=陽寧君)를 위해 癸亥年의 일을 도모하고자 術士를 불러 擧事할 시기를 잡았으니 대비 또한 이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임해군의 부인이 평소에 크게 고만하며 ‘내 생전에 이런 일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⁷⁸⁾

위에서 癸亥年의 일이란 인조반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반정을 통해 국왕을 교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은군은 왕실의 지친으로 인목왕후의 혼전인 효사전

75) 『仁祖實錄』권26, 인조 10년 6월 29일(乙未), “上在慶德宮大行大妃殯殿之側 寅時 行襲奠 百官擧臨於延光門外 殯殿都監執事官及承旨 擧臨於玄明門外 擧臨後 皆行拜禮 承旨不拜”

76)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6일(庚午)

77)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1월 22일(丙辰)

78)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16일(庚辰), “臣妾言于臣曰 洞內臨海君奴妻 時或出入 一日來言 國有大事云 妾問其詳 答曰 慶昌君爲吾宮養子 欲圖癸亥年之事 招致術士 推擇擧事之期 而大妃亦知此事云 臨海夫人常極憂悶曰 吾生前不欲見此等事云”

의 入番宗室 가운데 1인이었다.⁷⁹⁾ 고변 내용 중에 임해군의 부인 許氏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역모 사건이 臨海君家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임해군은 광해군의 형이자 선조의 장자였다. 중전인 懿仁王后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後宮의 아들 중에서 장자로서 임해군의 위상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과정에서 광해군이 급작스럽게 세자로 책봉되었다. 명은 광해군이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자 책봉을 거부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광해군 즉위 후에도 임해군이 병으로 폐인이 되어 후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명은 사정을 직접 확인하러 관원을 보내는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다.⁸⁰⁾ 정치적 부담을 느낀 광해군은 결국 역모 사건을 일으켜 친형인 임해군을 제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역시 광해군에 의해 제거된 永昌大君·綾昌君과 함께 임해군도 官封을 회복하였고,⁸¹⁾ 賜祭와 禮葬 조치가 내려졌으며,⁸²⁾ 물수한 땅과 노비도 還給되었다.⁸³⁾ 곧 宮家로서 그 위상을 확보해 준 것이다. 이 때 임해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복권과 더불어 慶昌君의 아들 陽寧君을 繼後子로 지정해 주었다.

경창군은 선조와 貞嬪 洪氏 사이의 아들이므로 광해군 당시 그의 혼례를 정원군이 주관하였고,⁸⁴⁾ 인조 초에는 元子(昭顯世子)의 冠禮 때 主人의 역할을 맡는 등 인조의 최측근 종실이었다.⁸⁵⁾ 이러한 인연으로 경창군의 아들이 후사 없이 죽은 임해군의 계후자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해군이 선조의 장자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계후자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경창군이 임해군의 계승자인 陽寧君을 추대하고자 하였다는 고변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대비가 관여되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대비는 인조의 왕통을 보증하는 존재였다. 인조는 대비의 명을 근거로 왕위에 올랐으며, 광해군이 폐세자를 사사한 일과 柳孝立 모반 사건에 연루된

79)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7월 5일(乙未). 그는 正陽君의 장자였는데, 정양군은 嶺南大君의 아들 德豐君의 둘째 아들인 桂林君의 넷째 아들이다. 계림군은 成宗의 둘째 아들인 桂城君 집안의 계후자였다. 을사사화로 처형되었던 계림군이 선조 10년 직첩을 돌려 받았으며(『宣祖實錄』권11, 선조 10년 6월 26일(壬午)), 이에 연동하여 정양군은 계성군의 계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다(『宣祖實錄』권21, 선조 20년 8월 7일(甲子)). 그리고 계림군의 집이 景雲宮의 경역에 포함되면서 정양군의 아들 이덕인이 賞職을 받게 되었다(『宣祖實錄』권121, 선조 33년 1월 25일(庚午)).

80) 광해군의 왕세자 책봉과 국왕 책봉을 둘러싼 조선과 명나라의 갈등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9 「광해군대의 대명관계」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87-195면 참조.

81)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15일(乙巳)

82) 『仁祖實錄』권1, 인조 원년 3월 19일(己酉)

83) 『仁祖實錄』권2, 인조 원년 6월 12일(辛未)

84) 『光海君日記』권31, 광해군 2년 7월 1일(甲辰)

85) 『仁祖實錄』권8, 인조 3년 정월 21일(庚午)

선조의 아들 仁城君을 사사하는 일을 모두 대비의 명령을 명분으로 삼았다.⁸⁶⁾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가 인조를 제거하려는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인조의 왕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연루되었던 홍집은 인목왕후의 사위인 洪周元의 아버지 洪靈과 형제간이었다. 홍집은 임해군 집의 옆에 살았으며, 宮奴의 처를 통해 모반 기도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후일 홍집을 현감으로 제수하는 기사에는 당시 공초에 인용된 내용이 “임해군의 養子 陽寧君이 大妃의 密旨를 받들어 大事를 모의하였다”⁸⁷⁾라고 정리되어 있다.

홍집의 공초는 사실 여부를 떠나 대비를 지칭한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대비가 사망하여 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비의 밀지가 운위되는 것 자체가 인조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다. 이에 인조는 사건을 사실 무근으로 종결지었다.⁸⁸⁾ 16일 고변이 있었는데 23일에 종결 조치를 내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 관계를 따지기 전에 서둘러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된 홍집을 이듬해 縣監으로 서둘러 제수한 것도⁸⁹⁾ 사건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상례 중에 궁중에서 인목왕후의 저주문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처음 仁穆王后의 喪에 宮中에서 帛書 3폭을 발견하였는데, 廢立한 일을 頒告하고 奏聞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다. 상이 꺼내어 戚屬들에게 보여주고 얼마 후 그 글을 가져다 불살라버렸다. 어떤 사람은 왕후가 西宮에 유폐되었을 때 쓴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부 사람은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⁹⁰⁾

위에서 말한 帛書는 神祀에 사용된 저주문으로서 그 내용에 국왕 교체를 회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⁹¹⁾ 실록에서는 西宮 유폐 때 광해군을 저주한 글이라는 전

86) 『仁祖實錄』권2, 인조 1년 6월 1일(庚申); 권18, 인조 6년 2월 20일(壬午)·21일(癸丑)

87)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7월 11일(辛丑), “養子陽寧君 奉大妃密旨 謀舉大事”

88)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3일(丁亥)

89)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7월 11일(辛丑)

90)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3일(丁亥), “初 仁穆王后之喪 得帛書三幅於宮中 有若頒告奏聞爲廢立之舉者 上出以示戚屬 尋取其書而燒之 或云 后幽西宮時所書 而外人莫知其然否”

91) 고변 및 저주 사건에 인목대비가 실제 연루되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인조가 사태를 조속히 덮어버리고자 한 것에서 그 사실성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인조와 인목대비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인목대비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인조는 元宗 追尊을 통해 국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명분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반정 당시 인조의 왕통을 보충하였던 인목대비의 정치적 위상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목대비는 인조의 왕통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국왕으로서 명분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이에 맞섰던 것이 아닌가

언도 수록하고 있지만, 인조가 측근에게만 보여주고 불사른 것으로 보아 인조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서궁 유폐 때의 것이라는 설은 인조와의 관련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목왕후가 저주를 통해 국왕의 교체를 도모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홍집의 공초 내용과 상통한다. 인조의 즉위를 보증한 대비가 다시 국왕의 교체를 도모했다는 것은 인조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인조는 앞서 발생한 고변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덮었지만, 저주문 사건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에 인조는 국청을 설치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였고,⁹²⁾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주물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목왕후 휘하의 여러 명의 궁녀가 추국을 받고 사망하거나 처형되었다. 하지만 궁궐 내부에서 국왕을 저주하고 교체까지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비의 연루 의혹까지 겹쳤기 때문에 관련자 조사와 처벌만으로 사태를 온전히 수습하기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도리어 저주가 대비에게 해를 미쳐 승하하게 되었다는 이귀의 주장 또한 인목왕후가 인조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문제의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⁹³⁾

그런데 당시 인조에게도 병세가 있었다고 나온다. 인조는 자신의 병세가 초상으로 인한 것이며 邪氣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⁹⁴⁾ 신료들은 移御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인조는 이튿날 書筵廳으로 처소를 옮기고 중전도 세자궁으로 옮겼다.⁹⁵⁾

하지만 신료들은 경덕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어할 곳으로 梨峴宮을 추천하였다.

오늘 移寓하는 계획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니 반드시 서둘러 멀리 피하여 調攝하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이 궁궐 안에 거처하면 비록 옮겼더라도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두 궁궐은 이미 移御하는 곳으로 합당하지 않아서 신들은 감히 다시 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南別宮이 자못 좋을 듯 하지만 여러 日官에게 물으니 방향이不佳하다고 합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相議해 보니 梨峴宮은 비록 좁을 것 같으나 그 가운데 房舍가 자못 많으니 三殿의 移御할 곳을 배치하기

한다. 인조의 왕통 문제를 둘러싼 인목대비와 역모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92)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3일(丁亥)

93)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7일(辛卯)

94)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5일(己丑), “此病 傷於初喪而發 疑以邪 過矣”

95)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3일(丁亥)

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各司들은 비록 담장 밖이라도 私家에 寓設하면 될 것 같습니다.⁹⁶⁾

위의 지적에서 드러나듯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다수의 전각이 소실된 상태여서 이어에 부적합하였다. 임진왜란으로 환어한 이래 주요한 의례가 배설되어 대안이 될 수 있는 南別宮은 방향이 불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⁹⁷⁾ 이것은 남별궁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남별궁에는 인목왕후의 혼전인 孝思殿이 원종의 혼전인 崇恩殿과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⁹⁸⁾ 인목왕후와 연계된 저주문이 발견된 상황에서 남별궁을 시어소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인조는 이현궁이 너무 좁고 인근 민가에 피해를 준다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경덕궁에 그대로 머물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였고, 현실적으로 대안은 이현궁 밖에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이현궁을 大內로 삼아 이어하기로 결정하였고,⁹⁹⁾ 이틀 후인 10월 28일 인조는 경덕궁을 떠나 이현궁으로 거처를 옮겼다.¹⁰⁰⁾

이처럼 인조가 이어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음에도 서둘러 경덕궁을 떠난 것은 그만큼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미 이괄의 난과 유효립의 모반 사건에서 선조의 아들들이 왕위에 추대되는 등 선조의 손자에 불과한 인조에게 이번 상황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비가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대비를 직접 추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사건을 덮는 것이 최선이었다. 결국 인조의 이현궁 이어는 대비가 연루된 고변 및 저주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이 다른 곳으로 이어하면 경덕궁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은 현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묻힐 수 있었다.

앞서 인조가 인목대비와 병중에 갑자기 인경궁으로 이어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곧 고변 내지 저주와 관련된 정황이 미리 발견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경궁 이어를 단행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어 당시 인조가 구체적인

96)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5일(己丑), “今日移寓之計 實出於不得已 必須急急速避 以爲調攝之道 若因處此關之內 則雖移 猶不移也 昌德昌慶兩關 既無可合移御處 臣等不敢更請 此外南別宮 頗似便好 而問諸日官 則以方向不吉爲言 臣等反覆相議 則梨峴宮雖似狹隘 其中房舍頗多 三殿移御之所 可以隨便措置 而自餘諸各司 則雖於牆外 私家寓設 未爲不可”

97) 선조-광해군대 남별궁에서 시행된 儀禮에 대해서는 윤정, 앞의 논문(2011b), 248-250면 참조.

98) 조선왕조 역대의 혼전과 인목왕후와 원종의 혼전에 대해서는 윤정, 2005 「조선시대 魂殿 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奎章閣』28, 87-88면 참조.

99)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6일(庚寅)

100)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7일(辛卯)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慈殿과 大內에 부득이 이어할 일이 있다고만 말한 것에서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런데 대비가 인경궁에서 승하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곳에 殯殿을 마련하면 이에 참여하는 신료들에게 앞서 인경궁으로 이어하게 된 사정이 환기되는 것이었다. 이에 사망 당일 상여와 함께 경덕궁에 돌아와 빈전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인경궁으로 이어하게 된 상황을 희석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변이 나오고 제주 사건이 터진 것은 당초 인경궁 이어를 단행하는 배경이 되었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帛書가 나온 제주 사건은 현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상례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인조의 병세를 명분으로 서둘러 이현궁으로 이어함으로써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였던 것이다.

2) 昌德宮 수리와 昌慶宮 重修

표의 [25]와 같이 인조는 경덕궁을 나와 이현궁에 머물다가 10여 일만에 다시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정식 궁궐이 아닌 이현궁의 성격상 장기 체류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인조는 창덕궁 이어를 위해 전각을 수리하는 동안 임시로 이현궁으로 이어한 것이었다.

처음 경덕궁 안에서 처소를 옮길 당시

이 궐 안으로 이어한 것은 옮기지 않은 것과 같으니 마땅히 일단 梨峴宮으로 이어하여 昌德宮의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¹⁰¹⁾

라는 건의가 나온 것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할 계획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이현궁이 좁고 민가에 피해를 준다면 반대하던 인조도 결국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여 이현궁으로 이어할 것을 결정하였다. 경덕궁에서 머물다가 창덕궁 수리 후 이어하지 않고 이현궁으로 먼저 옮긴 것은 그만큼 경덕궁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인조가 이현궁으로 이어한 다음날 11월 9일, 창덕궁으로 이어할 날자가 결정되었다.¹⁰²⁾ 이현궁에 체류하는 기간이 불과 10여 일이었음을 보면, 당시 창덕궁 수리

101)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5일(己丑), “移御於此闕之內 猶不移也 宜姑先移御于梨峴宮 以待昌德宮修繕之完”

102)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9일(癸巳)

는 새로 전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전각을 사용 가능하게 보수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반정 당시 창덕궁은 寢殿 권역이 불타고 仁政殿은 보존된 상태였다. 후금과의 관계 악화로 강화도에 산성과 행궁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건은 도모하기 어려웠지만, 남아 있는 시설을 관리 보수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인조 6년 敦化門을 수리하도록 한 것은 그 예이다. 인조는 조속히 수리하지 않으면 모두 무너져 材瓦도 못쓰게 되고 공역도 커진다고 하며 작업을 늦추고 있던 병조를 채근하였다.¹⁰³⁾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으로서 궁궐의 출입구이자 궁궐을 표상하는 곳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리를 도모한 것이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돈화문은 좌우의 衝櫓이 부러져 25·6척 크기의 재목 7개가 소요되는 정도로¹⁰⁴⁾ 관리를 위한 보수의 차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10년 창덕궁 이어가 결정되면서 남아 있는 전각을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修理所의 啓請에서 당시 창덕궁의 상황과 이용 방안이 확인된다.

修理所가 昌德宮의 都摠府를 中殿의 御室로, 內藥房을 大殿의 御室로, 春秋館을 視事하는 곳으로 삼고, 都摠府의 郎廳房 및 丕承閣 중에서 선택하여 東宮의 침실로 삼고, 弘文館을 書筵廳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¹⁰⁵⁾

위의 기사를 보면 반정 당시의 화재에서 도총부와 내약방(內醫院內局), 춘추관, 홍문관 등이 보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궐내 각사로서 화재가 발생한 침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어에 앞서 이 전각들을 수리하여 국왕 및 중전 등의 거처로 삼게 된 것이다.

한편 국왕의 이어와 함께各司도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대개의 아문은 궐밖 민가에 설치되었는데, 修理所의 보고에 따르면 각사가 배치된 민가는 30여 곳 정도였다.¹⁰⁶⁾ 전각의 수리와 각사의 배치가 끝나자 인조는 예정대로 11월 9일 이현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 2품 이상의 問安을 받았다.¹⁰⁷⁾

하지만 창덕궁 이어는 몇 개의 전각을 수리하여 처소를 마련하는 수준으로서 장

103) 『承政院日記』21책, 인조 6년 5월 25일(乙酉), “昌德宮敦化門傾頹處修政事 內官呈手本 已爲啓下 而兵曹不即舉行云 若盡傾頹 則非但不用其材瓦 必致大役 修改一日爲急 而兵曹何不舉行乎 問啓”

104) 『承政院日記』21책, 인조 6년 5월 28일(戊子)

105) 『仁祖實錄』권27, 인조 10년 10월 27일(辛卯), “修理所 請以昌德宮都摠府爲中殿御室 以內藥房爲大殿御室 以春秋館爲視事之所 都摠府郎廳房及丕承閣中 擇爲東宮寢室 以弘文館爲書筵廳 上從之”

106)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0월 27일(辛卯)

107) 『承政院日記』38책, 인조 10년 11월 9일(癸卯)

기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어가 길어지면서 경덕궁이나 인경궁으로 환어하거나 구궐을 충분한 규모로 중건해야 했다. 처음 이어 당시 인조는 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표방하였다. 인조 10년 10월 창덕궁 이어를 앞두고 각 아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조는

내년 봄에는 마땅히 경덕궁으로 돌아갈 터이니, 긴요하지 않은 아문은 당분간 창경궁으로 들어가 거처하여 폐단을 덜어주도록 하라.¹⁰⁸⁾

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창덕궁 이어에 따라 주요 아문이 궁궐 외곽의 민가에 배치되고 긴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창경궁에 배치하여 민가를 점유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당시 인조의 언급은 병조판서 金時讓이 차자를 올려 인경궁으로 이어하여 창덕궁을 수리하는 공역을 없앨 것을 청한 데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조는 인경궁으로 이어하지 않는 대신 이듬해에 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표방하여 이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경덕궁에서 서둘러 나온 것이 제주 사건과 인조의 신병을 명분으로 한 만큼 적당한 시점에 돌아간다는 명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인목왕후와 元宗의 祔廟처럼 자신의 왕위와 직결된 중요한 의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조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경덕궁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료들은 공역의 부담이 적은 仁慶宮 이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시양에 이어 이듬해에도 인경궁으로 이어하라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인조는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신료들도 결국 인조의 입장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인경궁이 광해군 폐정의 상징으로서 명분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備邊司는 인경궁 이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다만 생각건대 仁慶宮은 昏朝 때 미친 중이 건의하여 영건한 곳이니 風水의 吉凶은 논할 틈도 없이 건물 제도가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정말 이른바 ‘木妖’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제왕이 거처로 맞지 않으나 다만 事勢가 급박하여 일찍이 이곳으로 이어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대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聖意가 이미 이어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신들도 진실로 감히 다시 청할 수 없습니다. 昌德宮은 본래 祖宗의 法宮인데 宣祖 末年에 마침내 重建을 명하였으나 불행히도 지금 잿더미가 되었으

108) 『仁祖實錄』권27, 선조 10년 10월 28일(壬辰), “明春當遷慶德宮 不緊衙門 則姑令入處于昌慶宮 以省弊端”

니 또한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만약 인경궁의 몇 군데 전각과 材瓦를 철거하여 이 곁에 옮겨 지으면 인경궁을 修理하는 것과 비교하여 難易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祖宗의 法宮이 이로 인해 修建되면 事理에도 아주 타당할 것입니다.¹⁰⁹⁾

위에서 인경궁이 광해군 폐정의 표상임을 명시하면서 인조의 의지에 맞추어 창덕궁 중건을 도모한 것이다. 다만 건물을 새로 영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경궁 전각을 철거하여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역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祖宗의 法宮을 중건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조는 이 건의에 대해

昌慶宮은 불탄 곳이 많지 않으니 이 곁을 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¹⁰⁾

라고 답하여 창덕궁 중건이 아니라 창경궁 수리로 방향을 틀었다. 후술할 『昌慶宮修理所儀軌』에 따르면 당시 창경궁의 大內에는 明政殿·文政殿·麗暉堂·環翠亭이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¹¹¹⁾ 자연 인정전 외에는 大內 일원이 거의 소실된 창덕궁에 비해 중수의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인경궁 전각을 뜯어다 새로 지을 바에는 인경궁으로 이어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였다. 인경궁 전각을 이간하는 것은 새로 영건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그 자체도 상당한 공역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金尙容은 인경궁의 전각을 철거하여 창덕궁을 중건하지는 비변사의 의견을 반박한 뒤

일단 철거하여 이간하고 營繕하는 역을 중단하고 날씨가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 仁慶宮의 전에 임어했던 곳에 임시로 이어하고, 천천히 時事가 다소 안정되고 民力이 조금 썩기를 기다렸다가 法宮의 正寢을 영건하여 영구히 지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면, 적절치 않은 때에 공역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고 聖躬을 調攝하는 도리에도 편리할 것입니다.¹¹²⁾

109)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3월 25일(丙辰), “第念仁慶宮 乃昏朝狂僧倡議營建之地 風水吉凶 有不暇論 棟宇之制 極其奢麗 眞所謂木妖者也 本不合於帝王居處 而只緣事勢急遽 曾以移御之意仰稟 蓋出於不得已也 聖意既不欲移 則臣等固不敢更請 昌德宮本爲祖宗法宮 宣祖末年 遂命重建 而不幸今爲灰燼 亦甚可惜 若撤仁慶宮數處殿閣材瓦 移構此闕 則比諸仁慶修理 雖有難易之差 亦不至大相懸絕 而祖宗法宮 因此修建 其在事理 尤極便當”

110)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3월 25일(丙辰), “昌慶宮灰燼處不多 修理此闕可也”

111) 『昌慶宮修理所儀軌』啓辭, 인조 11년 3월 28일, 10장·4b면.

112)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3월 28일(己未), “姑寢撤移營繕之役 趁天氣未熱之前 急先權移於仁慶舊御之

라고 건의하였다. 그는 전각을 뜯어다 옮겨 짓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법궁을 중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경궁으로 임시 이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예조참의 李竣 역시 인경궁의 材瓦를 철거하지 말고 이어하자는 것과 修理의 역사를 일으키지 말고 軍需에 조금이나마 보충할 것을 청하였다.¹¹³⁾ 이들은 인경궁이 폐정의 상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후금과의 전쟁이 가시화되는 당시의 형편에서 공역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인경궁에 이어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인조는 일견 수긍하면서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인경궁 이어와 창덕궁 중건의 방안을 두고 전개된 논의는 인조의 뜻에 따라 창경궁 중수로 귀착되었다.

그런데 인조는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인경궁에 이어할 의사는 없었지만, 앞서 궁궐로 활용하고자 했던 인경궁을 훼손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에 인경궁의 일부 전각만을 이용하여 창경궁을 중수함으로써 인경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궁궐로 존속시키고자 했다. 이에 인경궁 전각을 철거하여 창경궁을 수리하는 공역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논의와 공역 과정은 규장각 소장 『昌慶宮修理所儀軌』¹¹⁴⁾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28일 창경궁의 남아 있는 전각 상황과 이건설 인경궁 전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修理所에서는

신들이 함께 창경궁 大內를 살펴보니 明政殿과 文政殿, 麗暉堂, 環翠亭 외에는 전각이 거의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만드시 仁慶宮 大內의 殿閣을 헤아려 철거한 후에야 成就할 수 있습니다. 仁慶宮 北邊의 몇몇 別堂의 林瓦로 모양을 갖추어 만 합니다.¹¹⁵⁾

라고 보고하였다. 위의 지적은 창경궁의 전면적인 중수를 위해서는 인경궁 大內 전각을 철거해야 하지만, 북쪽의 별당 몇 곳을 철거하면 모양은 갖추어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所 而徐待時事稍定 民力稍息 議建法宮之正寢 以爲永久貽燕之圖 則庶無興役不時之弊 而其於聖躬將攝之道 亦似便順矣”

113) 『仁祖實錄』권28, 인조 11년 4월 4일(乙丑), “禮曹參議李竣上疏 請勿撤仁慶材瓦 以爲移御之所 勿興修理之役 以補軍需之萬一”

114) 규장각 소장. 도서 번호 奎14322.

115) 『昌慶宮修理所儀軌』 啓辭, 인조 10년 3월 28일, 10장-2b면, “臣等會同看審昌慶宮大內 唯明政殿文政殿麗暉堂環翠亭外 殿閣幾盡燒毀 必須量 撤仁慶宮大內殿閣然後 可以成就 仁慶宮北邊數處別堂林瓦 所可成形也”

이에 대해 인조는

大内の 殿堂 가운데 철거할 곳은 마땅히 稟定한 후 옮겨 사용해야 할 것이다.¹¹⁶⁾

라고 지시하였다. 인경궁의 대내의 전각을 철거하는 것은 인경궁 자체의 훼손로 이어질 것임으로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리고 전각 이전에 일일이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궁궐로서 인경궁의 면모를 유지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이에 전각의 철거와 이전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으며, 그 내용이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다.

『昌慶宮修理所儀軌』에는 철거된 인경궁의 전각과 이를 가져다 증수한 창경궁 전각이 정리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인조 11년 창경궁과 인경궁 전각의 상관표

	증수된 창경궁 전각		철거된 인경궁 전각	
1	通明殿	5칸 4면퇴, 28칸	靑瓦殿	5칸 4면퇴, 36칸
2	思誠閣	4칸 전후퇴 월랑 5칸 전후퇴	觀僖堂	12칸 전후퇴
3	西冊房	6칸 전퇴	涵仁堂 대청	전퇴 3칸
			獻箴堂 온돌	4칸
4	西行閣 閣閣	6칸	壽縷堂 월랑	5칸
	西行閣 南邊 月廊	3칸	涵仁堂 동서행랑	4칸
5	1所 東行閣 閣閣	4칸	延祥門 외월랑	4칸
			涵仁堂 서온돌	4칸
			書筵廳 북월랑	1칸
6	東月廊	7칸	靑壁堂 주방	3칸 전퇴
			慶壽殿 동월랑 외행랑	3칸
7	南月廊	5칸 전퇴	新造	
8	正陽門	1칸 전퇴	新造	
9	麗輝堂	3칸 4면퇴	新補	
10	水刺間	4칸 전퇴	新補	
11	擣砧家	6칸 전퇴, 동서퇴	新補	

116) 『昌慶宮修理所儀軌』 啓辭, 인조 11년 3월 28일, 11장-5a면, “大內殿堂中可毀處 亦爲稟定移用 可也”

12		養和堂	3칸 사면퇴, 20칸	無逸堂	3칸 4면퇴, 20칸
		養和堂 東月廊	6칸	修補	
		養和堂 南月廊	9칸	碧月堂 행랑	9칸
13		通天門	1칸	碧月堂	1칸
14		肅明門	1칸	修補	
15	2所	延禧堂	3칸 4면퇴, 20칸	廣運堂	
		延禧堂 東月廊	5칸	獻箴堂 동월랑	3칸
				獻箴堂 서월랑	2칸
		延禧堂 西月廊	5칸	碧月堂	1칸
				壽縷堂	1칸
				文明殿 외월랑	3칸
		延禧堂 南月廊	10칸(1칸 無退 新造)	蘇基別堂	9칸 전퇴
延禧堂 北月廊	6칸(2칸 無退 新造)	獻箴堂 북월랑	4칸 전퇴		
16		演慶堂	3칸 전퇴, 9칸	獻箴堂	
17	3所	歡慶殿	5칸 4면퇴, 28퇴	文明殿	28칸
		歡慶殿 東月廊	전퇴 11칸	文明殿 외월랑	9칸
				延祥門 내월랑	2칸
		歡慶殿 南月廊	전퇴 13칸	鳳瑞樓, 龍興樓	각 5칸 전후퇴
				文明殿 외행랑	3칸
歡慶殿 西月廊	12칸	廣運堂 북행랑 (廣運堂) 남행랑	8칸 4칸		
18		橫家	5칸	文明殿 내행랑	5칸
19		景春殿	5칸 4면퇴, 28칸	壽縷堂 備邊司 材瓦	
	景春殿 南月廊	10칸	壽縷堂 材瓦		
20		集瑞門	1칸	壽縷堂 材瓦	
21		涵仁亭	1칸 4면퇴, 9칸 (4칸 新造)	慶壽殿 후행자	5칸
22	4所	歡慶殿 東牆外 第一月廊	13칸 전퇴	鳳儀門 내월랑	5칸 전퇴
				內差備 水刺間	5칸 전퇴
		第二月廊	16칸 전퇴(5칸 修補)	體元門 내월랑	15칸
23		北行廊	9칸 (2칸 修補, 2칸 新造)	慶德宮 弘文館 藏書閣	5칸
24		內差備行路閣	7칸	1칸 修補, 6칸 新造	

25	第三月廊	20칸	修補	
263	井邊曲家	7칸	4칸 修補, 1칸 新造	
2714	饌室	2칸	永肅門 내행랑	7칸
2814	涼家	2칸	修補	
2913	洗踏家	2칸	修補	
3014	厠間	6칸	修補	
3114	長慶門 內月廊	34칸	33칸 撤毀改修粧, 1칸 新造	
3214	長慶門	합1칸	新造	
33	一間門	2處	1處 文明殿 1間門, 1處 新造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중수된 창경궁의 전각 가운데 ‘新造’된 몇몇 전각은 인경궁의 목재 등을 사용하여 새로이 지은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전각은 인경궁 전각을 철거하여 이진한 것이다. 靑瓦殿, 觀喜堂, 獻箴堂, 文明殿, 壽縷堂, 書筵廳, 靑壁堂, 慶壽殿, 蘇基別堂, 延祥門, 鳳瑞樓, 龍興樓, 廣運堂, 壽縷堂, 慶壽殿, 鳳儀門, 內差備 水刺間, 體元門, 永肅門 등의 20여 개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전각들은 그 명칭에서 대개 인경궁의 別堂과 月廊으로 파악된다. 즉 수리소의 보고에서 북쪽 別堂의 材瓦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경궁의 주요 전각 명칭이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인경궁의 전각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수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通明殿의 경우 인경궁에서 靑瓦를 수송하여 덮은 것으로 보아 靑瓦殿을 옮긴 것을 알 수 있다.¹¹⁷⁾

한편 弘文館의 제청에 따라 慶德宮에 따로이 설치하였던 藏書閣의 五間層屋도 옮겨졌다(표 4) 23번.¹¹⁸⁾ 이것은 필요 전각을 확보하는 한편 인경궁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공사의 기초에 따른 것이었다.

이건 공사는 6월 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며,¹¹⁹⁾ 7월 11일에는 새로이 조성된

117) 『承政院日記』39책, 인조 11년 4월 19일(庚辰), “通明殿蓋瓦 當在數日之內 而靑瓦性不堅固 不可以車馬運致 暫借訓練都監之軍 排在替傳 則似爲便當”

118) 『昌慶宮修理所儀軌』啓辭, 인조 10년 4월 3일, 17장-8a면.

119) 『昌慶宮修理所儀軌』啓辭, 인조 11년 6월 9일, 25장-12a면, “昌慶宮殿閣諸處 幾已完畢”

殿閣에도 편액을 걸도록 하는 등¹²⁰⁾ 공사의 완공을 보았다.¹²¹⁾ 표의 [26]과 같이 그리고 7월 26일 인조가 창경궁으로 이어하였다.¹²²⁾ 인조가 임어한 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8월까지 진행되는 한편 공사 감독관들에 대한 포상이 논의되었다. 인조는 당상관 이하에게 加資하여 벼슬을 올려 주고 次知內官도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사헌부에서는 직분상 할 일을 한 것이며 그 업무가 '修理'로서 새로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반대했지만, 인조는 빠른 완공을 명분으로 포상을 강행하였다.¹²³⁾

이로써 인조가 경덕궁을 떠나 이현궁과 창덕궁을 거쳐 창경궁에 임어하는 일련의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이후 인조는 표에 나타난 비와 같이 병자호란으로 다시 도성을 떠날 때까지 창경궁을 주된 시어소로 사용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창덕궁(27·29·37)과 경덕궁에도 하루씩 이어한 것으로 나오지만(31·33·35), 임어와 관련된 특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인조 14년 5월 12일 병자호란으로 강화도로 피난하기 위해 경덕궁에 이어한 사실은 정황적으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¹²⁴⁾ 하지만 인조 일행은 길이 막히자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다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반기의 궁궐 경영은 비록 창경궁으로 이어 과정에서 창덕궁이 부분적으로 수리되었지만, 창경궁을 시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조의 지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반정 직후 창경궁을 시어소로 삼았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광해군의 궁궐 영건을 폐정으로 규정하였던 반정의 명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인조 전반기(1-14년)의 궁궐 경영과 그 귀결로 이루어진 舊闕(昌慶宮)의 重修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은 창덕궁에 있었다. 敦化門을 통해 창덕궁에 진입한 반정

120) 『昌慶宮修理所儀軌』 啓辭, 인조 11년 6월 9일, 26장-12b면, “修理之役垂畢 新造殿閣 當爲揭額 令該曹 斯速舉行之意 敢啓”

121) 『仁祖實錄』 권28, 인조 11년 7월 11일(辛丑)

122) 『仁祖實錄』 권28, 인조 11년 7월 25일(乙卯)

123) 『光海君日記』 권28, 인조 11년 8월 6일(乙丑)

124) 『承政院日記』 52책, 인조 14년 5월 12일(乙卯)

군이 광해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寢殿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仁政殿과 궐내 각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 궁궐을 장악한 인조는 大妃(仁穆王后)가 유폐된 慶運宮으로 가서 대비를 복위시키고 그 명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이어 인조는 대비와 함께 창덕궁으로 돌아온 뒤 창경궁에 머무르며 정사를 보았다.

창경궁에 머무르던 인조는 이괄의 난으로 인조 2년 2월 8일 도성을 떠나 공주로 파천하였다가 반란이 진압된 후 환도하였는데, 그 사이 창경궁이 화재로 소실되어 부득이 慶德宮으로 환어하였다. 당시 도성에는 慶運宮과 仁慶宮도 있었지만 모두 임어가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경운궁은 인목왕후가 유폐된 곳으로서 가장 먼저 폐정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반정 직후 인조는 선조가 지내던 寢殿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本主에게 還給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궁궐을 폐기하였다. 경운궁은 인목왕후가 왕비로서 입궁한 사적이었으나 광해군이 이곳에 대비를 유폐하고 西宮으로 강등하면서 광해군 패륜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인조는 이를 훼손함으로써 반정의 정당성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宣祖의 사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전을 보존하였다.

한편 인경궁은 과도한 궁궐 영건으로 백성을 피폐하게 했다는 광해군 폐정의 표상이었다. 신궐 영건은 인경궁 영건에서 시작하였고, 도중에 西別宮(慶德宮)을 지은 뒤 인경궁 공사를 마무리하던 중 반정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신궐 중에서도 인경궁이 폐정의 상징으로 우선 부각되었다. 이에 인조는 부담이 적은 경덕궁을 사용한 것이다.

인조 3년 이후 인조는 경덕궁을 시어소로 사용하였는데, 정묘호란을 거친 뒤에는 인접한 인경궁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특히 인조의 인경궁 임어는 대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인조 8년 3월 인경궁에서 대비를 위해 豊稟禮를 거행하고 행사 기간 동안 이곳에 임어한 것은 그 예이다. 당시 행사에 대해 신료들은 인조 2년처럼 時御所에서 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조는 풍정례를 계기로 이곳을 궁궐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조 4년 啓運宮의 상례에서 인경궁에 혼전을 설치한 것은 인경궁 활용의 계기가 되었다. 신료들은 인경궁이 궁극적으로 폐기할 곳이라고 보면서도 대궐인 만큼 상주인 綾原君이 거처할 수 없으며, 궐내에 혼전을 두면 私廟라고 할 수 없다는 입론에서 반대하였다. 이는 국왕이 인경궁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면 그 위상이 궁궐로 확립되어 훼손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인조는 인경궁이 궁궐이기는 하지만 祖宗의 法宮이 아니므로 명분에 구

에되지 않으며, “하나의 버려진 터”로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인경궁에는 鑄錢廳이 설치되는 등 공간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조는 이를 국왕 내지 왕실 차원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인조는 인경궁을 활용하면서 대비를 매개로 삼았다. 대비는 인조 7년 인경궁의 椒井에 가서 목욕하며 지낸 일이 있었는데, 인조는 이듬해 이곳에서 대비를 위한 풍정례를 치르고 직접 임어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인경궁에 대해 왕실의 행사가 열리는 궁궐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신료들은 인조가 인경궁에 행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인경궁은 경덕궁 북쪽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北門인 武德門을 통해 小興로 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신료들은 인경궁이 궁궐의 밖이라며 法駕를 갖추어 正路로 다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경궁을 경덕궁과 구분하면서 국왕이 머무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인경궁 행차에 줄곧 무덕문을 사용했는데, 이는 길이 짧다는 이점과 함께 인경궁이 실질적으로 경덕궁과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인조의 궁궐 경영은 인조 10년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해 대비의 건강이 악화되자 인조는 급히 대비와 함께 인경궁으로 이어하였다. 당시 인조는 “慈殿과 大內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얼마 후 대비는 인경궁 欽明殿에서 사망하였는데, 인조는 당일 상여를 경덕궁으로 옮겨 殯殿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당시 인경궁 이어와 경덕궁 환어가 인조 및 대비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이 일을 계기로 인조는 경덕궁을 떠나 이현궁과 창덕궁을 거쳐 창경궁으로 이어하게 되었다. 이어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비 사망 직후 벌어진 告變과 저주 사건이었다. 懷恩君 李德仁은 선조의 아들 慶昌君이 臨海君의 양자로 들어간 자신의 아들 陽寧君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였다고 고변하였다. 그런데 사건에 연루된 홍집의 공초에서 모의 사실을 대비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파장을 불러왔다.

선조의 장자인 臨海君은 광해군에 의해 제거되었으나 인조반정 후 복권되었고 陽寧君을 그 후계자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양녕군은 선조의 長孫이 되었다. 인조의 왕통을 보증하였던 대비가 양녕군을 추대하려는 모의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인조의 왕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다. 이에 인조는 사실 무근으로 판정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곧이어 상례 과정에서 인목왕후의 저주문이 발견되었다. 이 저주문에는 국왕의 교체를 회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조는 국청을 설치하고 조사하도록

하였지만 관련자 조사와 처벌만으로 궁궐 내부에서 일어난 국왕 저주 사건과 대비의 연루 의혹을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인조의 신병을 명분으로 궁궐 이어를 추진하였다. 인조와 중전은 곧바로 궐내의 書筵廳과 세자궁으로 이어하였으나 신료들은 경덕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어할 곳으로 梨峴宮을 추천하였다. 인조는 이현궁이 너무 좁다며 반대하였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현궁으로 이어하였다.

인조가 서둘러 경덕궁을 떠난 것은 사건의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건의 과장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앞서 인목대비의 병중에 인경궁으로 이어한 것도 저주 사건이 미리 감지되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비가 사망하자 그 날로 상여를 경덕궁으로 옮긴 것 또한 인경궁 이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례 과정에서 고변이 나오고 저주 사건이 터지면서 사건을 경덕궁 안에서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경덕궁을 떠나 조속한 수습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인조는 이현궁에 머문 지 10여 일만에 다시 昌德宮으로 이어하였다. 이현궁 이어는 창덕궁 전각을 수리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창덕궁 수리는 새로 전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전각을 보수하는 수준이었다. 都摠府를 중전의 御室로, 內藥房을 대전의 어실로, 春秋館을 視事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都摠府의 郎廳房이나 丕承閣 중에서 東宮의 침실을 마련하고 弘文館을 書筵廳으로 삼았다. 한편 창덕궁 외곽의 민가 30여 곳에 각사가 분산 배치되었다.

그러나 창덕궁 또한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궁극적으로는 경덕궁이나 인경궁으로 환어하든지 舊闕을 중건해야 했다. 당초 인조는 경덕궁으로 환어할 것을 예정하였지만 이는 경덕궁을 떠난 이유와 관련하여 명분적으로 표방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경덕궁으로 환어할 가능성은 없었다.

신료들은 공역 부담이 적은 인경궁 이어를 도모했으나 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료들은 인경궁 전각을 철거하여 창덕궁을 중건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인조는 창덕궁 대신 창경궁 중수를 선택하였다. 인조는 창경궁 전각의 손상이 적어 공역이 적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인경궁이 전면적인 철거로 인해 궁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 신료들은 여전히 인경궁 전각을 이전할 바에는 인경궁으로 이어했다가 뒤에 창덕궁을 중건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조는 창경궁 중수를 강행하였다.

당시 창경궁 수리의 내용은 『昌慶宮修理所儀軌』에 정리되어 있다. 창경궁의 전면적인 중수를 위해서는 인경궁의 대내 전각을 철거해야 하였지만, 실제 공역은 20여 개의 別堂과 月廊을 철거하여 창경궁으로 이전하는 수준이었다. 인조는 인경

궁의 전각을 이건설 때 반드시 재가를 받도록 하여 전각의 전면적인 철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중수 공사를 마치고 인조는 창경궁으로 이어하였으며, 이후 병자호란으로 다시 도성을 떠날 때까지 창경궁이 주된 시어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조의 궁궐 운영은 자신의 즉위 직후 창경궁을 시어소로 삼았던 상황을 복구하려는 지향을 가진 것이었다.¹²⁵⁾

주제어 : 承政院日記, 光海君, 仁祖, 仁穆王后, 昌慶宮, 昌德宮, 慶運宮, 仁慶宮, 慶德宮

투고일(2011. 7. 4), 심사시작일(2011. 7. 13), 심사완료일(2011. 7. 29)

125) 한편 인조 후반기 창덕궁을 중건하여 이를 활용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 전반기 궁궐 경영의 기저와 다른 인조의 정국 운영의 지향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별도로 자세히 논할 것이다.

〈Abstract〉

Renovation of the “Old Palace[舊闕]” (Chang’gyeong-gung/昌慶宮)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King Injo/仁祖’s reign, and the
Management of Palaces

– Examination of records referring to Injo’s whereabouts in
『Seungjeong-weon Ilgi/承政院日記』 –

Yoon, Jeong *

In this article, the palace management that continued in the early half of King Injo’s reign(from his enthronement, and through the 14th year of his reign), and the renovation of the “Old Palace[舊闕]” (Chang’gyeong-gung/昌慶宮) which was the result of such efforts, are examined. At the time of Injo’s enthronement, there were two types of palaces being used inside the capital: the “Old Palaces” like Chang’deok-gung/昌德宮 and Chang’gyeong-gung, which had already been renovated during King Gwang’hae-gun’s reign, and “New Palaces” such as Gyeong’un-gung/慶運宮 or In’gyeong-gung/仁慶宮 & Gyeong’deok-gung/慶德宮, which were only recently erected. Yet this situation considerably changed, coming into Injo’s reign.

In the process of kicking Gwang’hae-gun/光海君 out of the throne, a fire broke out and incinerated the Chang’deok-gung palace. The Gyeong’un-gung palace was dismantled and returned to its original owner as well. Also, the ensuing insurrection of general Yi Gwal/李适 turned the Chang’gyeong-gung palace into ashes. This caused some trouble for the new government. The new regime, headed by King Injo, defined all the palace managements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as ‘bad governing(弊政),’ yet soon found itself in a dilemma which forced them to use all those palaces that they just labelled as examples of bad governing.

Then, at the 10th year of Injo’s reign, the Injo government’s usage of palaces took a new and abrupt turn. After Queen Inmok Wang’hu/仁穆王后 died, a conspiracy of treason (and also an attempt to execrate the king himself) was

* Research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vealed, and for safety issues Injo left the Gyeong'deok-gung palace. This was an intentional move on the king's part, to minimize the political ramifications of the conspiracy, by leaving the place that was directly involved with the issue itself, for good.

Injo, who decided to stay temporarily at the remaining Chang'deok-gung palace for the moment, dismantled the In'gyeong-gung palace next year and renovated the Chang'gyeong-gung palace. After the renovation was complete, he moved over to Chang'gyeong-gung, and until he was forced to leave the palace again due to the war with the Manchurian Qing("Hu'geum") forces, the Chang'gyeong-gung palace continued to serve as the king's main residence. It was Injo's intention to recreate the condition of the time of his initial enthronement, in which he began to live primarily at Chang'gyeong-gung right after he ascended to the throne.

Key Words : Seungjeong-weon Ilgi(承政院日記), King Gwang'hae-gun(光海君), King Injo(仁祖), Queen Inmok Wang'hu(仁穆王后), Chang'gyeong-gung(昌慶宮), Chang'deok-gung(昌德宮), Gyeong'un-gung(慶運宮), In'gyeong-gung (仁慶宮), Gyeong'deok-gung(慶德宮)